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열흘 동안의 시험

10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꺼질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11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13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14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15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16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네 젊은이

17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18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19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20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열 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1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우상의 음식 대신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요청한 다니엘과 세 젊은이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들의 뜻대로 우상의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실천한 네 젊은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1. 다니엘은 자신을 감독하는 관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나요? (12-13절)
그 결과는 어땠나요? (15-16절)

2.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삶의 양식, 즉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로 갚아 주시나요? (17,20절)

• 닦아가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느부갓네살의 꿈**

1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3 왕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4 그러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5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 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 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 더미를 만들 것이다. 6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 보라." 7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 드리겠습니다." 8 그러자 왕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9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말하려는 것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 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함**

10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여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2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3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3 묵상하기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초강대국의 왕이자 위대한 존재로 불렸지만, 그 또한 무엇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꿈 때문에 불안에 떠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을 사람의 힘을 의지해 해결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막무가내로 화를 분출합니다(12절). 바벨론의 지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불렸지만 단서조차 없는 남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점성술사가 뭣 모르고 한 고백처럼 이 일은 사람이 아닌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11절).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결국 인간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일은 한계 투성인 나에게서, 또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 적용하기

요즘 나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듯 답답하고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게 하는 마음의 근심이 있나요? 혹시 그 문제를 사람을 통해,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면 이제 모든 노력을 멈추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해답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잠을 이룰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저런 방법을 찾기 전에 무엇보다 해야 할까요?
- ② 그동안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애쓰던 일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주를 의지하며 주를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꿈 해석을 제안한 다니엘**

14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한입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16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7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18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꿈의 비밀을 알려주심**

19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0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21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22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 23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쭙어 본 것을 내게 알려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 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 묵상하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침착하기만 합니다. 다른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막연했지만, 해몽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이토록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의 주관자이신 분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합심해 기도하는 그의 태도는 사람을 의지해 해결하려다 한계에 부딪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한 그의 담대함을 본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나도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라는 마음이 습관처럼 따라붙는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 있는 것일까요? 답답한 현실이 아닌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만,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위기를 찬양으로 바꿉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막연하고 "알 수 없는 문제"(18절)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처럼 오늘 내가 주님께 믿고 맡겨야 할 근심거리는 무엇인가요?
- ②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다니엘처럼, 오늘 나의 기도제목을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알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왕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

24 그런 다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아리옥은 다니엘을 당장 왕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왕께 해몽해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6 왕이 다니엘, 곧 벨트사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 27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28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 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29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셨습니다. 30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 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 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 꿈의 내용을 설명함

31 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32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33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34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 버렸습니다. 35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의 거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3 묵상하기

모두가 파악조차 못하는 꿈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보란 듯이 왕 앞에 나아가 남다른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궁금해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앞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요(28절), 자신이 잘나서 꿈을 알고 해석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30절). 이처럼 다니엘은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 앞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상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나의 고백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 있던 삶의 모든 순간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도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4 적용하기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주목받으려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기회를 망설이다 놓쳐버리거나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자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을 전한 다니엘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②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면서 작은 성과 앞에서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겸손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 36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37 오, 왕이여! 왕께서는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38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가십니다. 39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 보다 못합니다. 그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40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모든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41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돌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42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43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45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 **느부갓네살의 고백** 46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47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네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네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48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49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3 묵상하기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바벨론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를 금과 청동과 쇠처럼 강하게도 하고 돌로 산산조각 나게도 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한순간에 바벨론의 관리로 세우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49절). 마찬가지로 나의 역사, 누군가의 역사, 우리나라와 세상의 역사 또한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44절) 지금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하나하나 실행해가고 계십니다.

4 적용하기

세상의 대세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대세인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있는 권력, 잠시 있는 화려함, 잠시 있는 강력함에 속지 마세요.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듯 한 사람,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대세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요즘 내 마음을 빼앗는 강력한 유혹, 화려한 것, 세상의 대세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② 세계의 역사가 주님 손에 있듯 나의 역사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님, 주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금 신상에 절하기를 명령함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습니다. 2 느부갓네살 왕은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연락해 그가 세운 신상 제막식에 모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3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에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4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5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 신상에 절하라. 6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리라." 7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발당함

8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9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10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11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12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3 묵상하기

화려한 금 신상을 만들어놓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강압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달콤하고 자극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부담이나 성적에 대한 압박, 혹은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세인 데다 시대의 흐름이라 거스르기가 어렵고, 또 동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될까 봐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대가 악할수록 나는 대세가 되어버린 '금 신상'들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세상의 금 신상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소신을 지키며 구별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4 적용하기

재물과 성적, 성공과 인간관계 등 세상이 내세우는 '금 신상'은 다니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하고, '너는 왜 따르지 않니?'라는 주위의 시선에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나에게 그런 유혹거리는 무엇인지,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선택과 결단을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내게 압박을 주는 '금 신상'은 무엇인가요? 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결단하고 거부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느부갓네살의 회유

13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나? 15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16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7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입니다. 18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19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20 군대의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은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21 세 사람은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묶여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22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2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공공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